

## 조선시대 남자바지에 관한 연구

구 남 옥

전주대학교 문화관광학부 전통패션문화전공 강의전담교수

### A Study on the Men's Trousers in the Chosun Dynasty

Nam-Ok Ku

Professor, Dept.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Jeonju University  
(2002. 5. 6 투고)

####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proving the fact that Men also wear SOKGOT similar to women's pants in early Chosun era unlike the general opinion that the men's pants is SAPOK-BAJI.

From what SAPOK-BAJI didn't show up in the contemporary remains and the fact that men also wear GAE-DANG-GO (開襠袴, the pants opened low parts), which is one of SOKGOT types in ancient time of China, the assumption above can be guessed. Since the clothes style in Chosun era centered on PO(袍), and the pants were designed not to show out, it can be considered there are any troubles for men to wear the SOKGOT style pants.

But through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Chinese invasion of Korea in 1636, changes happened. Due to reflection and awaking about wide and burdensome clothes, the change seemed to be happened from wide SOKGOT style to narrow SAPOK style

The SOKGOT style pants seemed to settle down for women's only as men's pants become SAPOK-BAJI.

Key Words : Exhumed clothing(출토복식), Man's Pants(남자바지), Trouser(바지)

#### I. 서 론

바지는 하반신에 착용되는 것으로 두 개의 바지가랑이가 있고 허리에서 고정되는 복식을 의미한다. 또한 바지는 북방계 복식의 한 특징으로, 우리

나라 복식은 상대시대로부터 현대한복에 이르기까지 上衣下袴를 기본복식으로 착용하여 왔다.

이제까지의 조선시대 바지에 관한 학설을 보면 남자바지는 사폭형이고 여자의 바지는 속곳형이라고 되어 있었다. 사폭형이란 사폭과 마루폭, 허리

로 구성된 바지의 형태를 의미하며, 속곳형은 밑과 바지통과 허리로 구성된 단속곳 모양의 바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출토된 유물을 보면, 조선 초부터 임진왜란 전에 사망한 묘주의 분묘에서는 사복형 바지가 단 한 점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흠조(1462-1528, 경북 영주출토), 정은(1481-1538, 경기 파주출토), 신언식(1519-1582, 경기 일영출토), 김약(1559-1624, 경북 안동출토), 고여우(?1570-1640, 충남 천안출토)와 같이 묘주가 분명히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속곳형의 바지를 입고 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박승(1520-1557)이 그의 저서 『鶴天先生遺集』에서 '남편의 관속에 아내의 의복 일습을 넣거나 아내의 관속에 남편의 의복 一襲을 넣는 풍속은 예에 어긋나니 따르지 말라'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배우자의 의복을 부장하는 수례 풍습<sup>3)</sup>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 전에 타계한 남자의 분묘 13개에서 속곳형의 바지만 출토되고 사복바지는 補空品으로도 발견되고 있지 않은 점은 기존 학설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즉, 조선 초부터 임진왜란 전까지는 남·녀가 유사한 모양의 속곳형 바지를 착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출토복식을 연구한 학자들로부터 이러한 가능성은 조심스럽게 제시되어왔다.<sup>4)</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진왜란 이전인 조선 전기 남자의 바지가 속곳형태였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시대 남자바지의 형태의 변화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자료는 조선시대의 복식사 분야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는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그 연계성을 밝히기 위하여 고문헌자료를 근거로 삼아 연구하였다.

## II. 문헌에 나타난 바지관련 용어 분석

문헌에 나타난 바지관련 용어를 살펴보면 袴, 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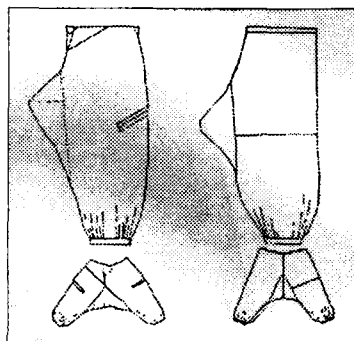
<표 1> 문헌에 나타난 바지 관련용어

바지 관련 용어		문헌	시 대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
袴	袴, 窮袴, 大口袴, 大口袴, 袴大口, 赤黃袴, 長袴, 靑錦袴, 綾袴, 褙袴, 寬袴, 來袴, 白袴, 白亭窮袴, 紫袴, 黃袴, 早袴, 文綾寬袴 唐袴, 廣袴, 古長袴, 白紬袴, 單袴, 袂袴, 合袴 등	舊唐書, 唐書, 南齊書, 通典, 翰苑, 三國遺事, 三國史記, 隋書, 北史, 高麗圖經, 高麗史, 東國通鑑, 高麗史節要, 朝鮮王朝實錄, 松泉筆談, 戊午燕行錄, 林下筆記, 樂學軌範, 殯殿都監儀軌 등	0	0	0	0	0	0
褙	褙, 犢鼻褙	梁書, 南史, 東國李相國集				0	0	
袴半	袴半	梁書, 南史			0			
袴背	袴背	鷄林類事			0			
末袴	襪袴, 襪頭袴, 末袴, 抹袴, 末古	高麗史, 殯殿都監儀軌					0	
襪裙	襪裙, 袜裙, 袂襪裙, 單袜裙, 膝欄單襪裙 등	世宗實錄, 樂學軌範, 嘉禮都監儀軌, 尙方定例, 殯殿都監儀軌, 國葬都監儀軌					0	
把持	把持, 襦把持, 單把持, 袂把持 등	成宗實錄, 嘉禮都監儀軌, 國婚定例, 尙方定例					0	
把赤	把赤	世祖實錄					0	
바지	바지, 바디	衣襟件記					0	
봉지	봉지, 奉只, 鳳池, 廣奉只	衣襟件記, 殯殿都監儀軌					0	
봉디	봉디, 廣봉디, 甲봉디, 單봉디,  핫봉디	衣襟件記					0	
고의	고의	衣襟件記					0	
裏衣	裏衣, 襦裏衣, 單裏衣, 裡衣, 單裡衣 등	成宗實錄, 嘉禮都監儀軌, 國婚定例, 殯殿都監儀軌, 衣襟件記					0	
니의	니의, 단니의	衣襟件記, 朝鮮王朝實錄					0	
속곳	단속곳	衣襟件記					0	

의, 禪, 柯半, 柯背, 襪裙(末袴), 裏衣(니의), 바지(把持, 把赤), 봉디, 봉지 등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1>은 이러한 용어들을 문헌과 시대별로 정리한 것이며 이것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조선까지 바지용어의 변화를 알 수 있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용어는 袴이다. 이것은 바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용어로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 문헌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형태와 색, 재료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분류되었는데 赤黃袴, 靑錦袴, 紫袴, 白袴, 白苧窮袴, 黃袴, 早袴, 白紬袴 등은 색을, 靑錦袴, 綾袴, 褐袴, 白苧窮袴, 文綾寬袴, 白紬袴 등은 직물을, 單袴, 袂袴, 合袴, 縣袴 등은 제작방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窮袴, 太口袴, 大口袴, 袴大口, 寬袴, 長袴, 廣袴, 唐袴, 古長袴 등은 형태를 설명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窮袴는 褌이 달려 밑이 막힌 바지를 의미한다<sup>5)</sup>. 이렇게 밑이 당으로 막혀있는 예는 세계 최고의 바지유물인 흉노족의 Noin-ula 출토 바지를 들 수 있다. <도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것은 큰 폭의 毛布를 접어 꺾어서 안쪽으로 봉합시켜 바지통을 만들고 두 가랑이가 마주 닿는 곳에 褌을 대었다. 바지부리에 선을 들렀으며 약간의 주름을 잡았고 허리는 단을 안으로 접어 넣었다<sup>6)</sup>. 이것을 착용하였을 경우에는 당이 뒤쪽으로 약간 볼거지게 되는데 그와 같은 바지 착용의 모습을 고구려 무용총의 고분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고대 우리 민족도 이러한 바지를 착용한 것으로 생각된다.<도 2>



<도 1> 노임우라 바지  
「한국복식문화의원류」, p.112



<도 2> 고구려 무용총 주실 동벽 무용인,  
「한국미술전집」, 4.

大口袴, 太口袴, 袴大口 등은 같은 형태의 바지의 異名으로 일반적으로 寬袴, 廣袴와 같이 통이 넓은 바지를 의미하며, 長袴는 명칭 그대로 긴 바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唐袴는 서유문의 「무오연행록」에 “...바지는 당바지[唐袴]로 대롱이 좁아 굴신하기 어려울 듯 하며...”<sup>7)</sup>라 설명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통이 좁은 바지를 의미한다. ‘唐’자가 붙은 것을 통하여 조선의 것이 아닌 중국제를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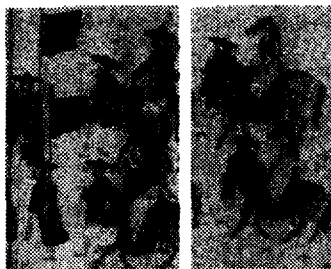
古長袴는 방언에 여자 속옷바지를 ‘고쟁이, 고장바지, 꼬장바지’<sup>8)</sup> 등으로 부르는 것으로 미루어 속곳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

褌은 홀로 만든 짧은 형태의 바지를 의미한다. 삼국시대는 문헌상으로는 「梁書」, 「南史」의 백제조에만 나타나있으나 고구려 벽화에 표현된 짧은 바지형태와 사서에 신라의 복식은 고려와 같다고 기록된 점등으로 미루어 삼국 모두 끈을 착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려시대의 「東國李相國集」에 나타난 이규보의 시에서 “犢鼻褌”이 있는데, 조선시대 방언 중 “쇠코잠방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잠방이 형태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로서 끈은 우리 민족 대대로 착용되어온 활동성 있는 바지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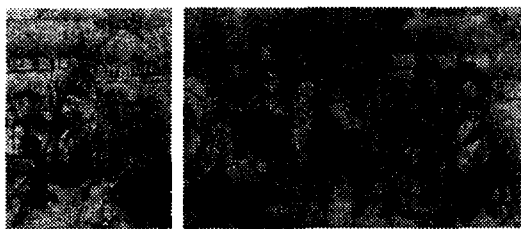
柯半과 柯背는 신라에서 착용하였던 바지이다. 김동욱은 이를 ‘가롤[柯] 뷔[布:半,背]’ 즉 두 가랑이로 나뉘어진 뷔를 表音한 것으로서 「說文」의 “脛衣”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9)</sup>

襪裙(末袴)은 襪이 달린 裙을 뜻한다. 용어 상치마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樂學軌範」에 나타난 말군의 그림을 통하여 바지 형태임을 알 수 있

며, 구조상 襪이 달린 것과 없는 것, 어깨걸이가 있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말군과 「殲殿都監儀軌」과 「高麗史」에 나타나있는 襪袴(末袴, 抹袴, 末古 등)는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고려의 襪袴는 내관이 착용하였던 白綾襪袴와 승려의 襪頭袴가 있는데 전자의 형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후자는 바지형태가 아닌 宋대 승려들이 착용하였던 膝袴의 한 형식인 襪袴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sup>10)</sup>. 조선시대 말군은 초부터 말기까지 주로 여성의 복식으로 나타나 있으며, 왕비부터 기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여성들이 馬上衣로 착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남자의 말군에 관해서는 세종 18년 10월 세자빈 봉씨 폐출에 관한 기록<sup>11)</sup>에 나타나 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세자의 말군을 여자 의복으로 고쳤다고 하므로 남자도 말군을 착용하였으며 그 형태가 여자의 것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풍속화인 '安陵新迎圖' <도 3>와 '東來府使接倭使圖' <도 4>에 기녀 외에도 무관으로 보이는 남자들이 말군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남자들도 마상으로 말군을 착용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남녀 말군의 형태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말군은 마상의 외에 기녀들의 무복으로도 착용되었다.



<도 3> 安陵新迎圖 일부, 『조선시대풍속화』, p.42



<도 4> 東來府使接倭使圖 일부, 『조선시대풍속화』, p.40.

把持는 바지(바디)의 한자 차용어로, 「成宗實錄」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 등장되고 있다. 「世祖實錄」 15년(1459) 기록에 등장하고 있는 把赤<sup>12)</sup>도 또한 바지의 한자차용어임을 알 수 있다.

봉디, 봉지(奉只, 鳳池)는 바지의 궁중용어로 왕과 왕비의 바지를 의미한다. 왕비와 왕세자빈의 봉디는 속바지를 뜻하는데 그 중 廣봉디와 廣奉只는 단속곳 형태의 너른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裏衣(裡衣), 니의는 일반적으로 겉옷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속옷의 의미로도 사용되었으나, <표 1>에 기록된 것은 속바지를 의미한다. 「朝鮮王朝實錄」 세조 13년<sup>13)</sup> 구성군의 처에게 내리는 왕의 사여물 목록과 성종 10년<sup>14)</sup> 기록에 나타나 있는 중국 부인에게 내리는 왕의 사여물에 「單裏衣」 있는데 이것은 단속곳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衣櫛件記」에 나타난 이의는 왕비와 왕세자빈의 속바지를 칭하고 있는데, 비록 “단이의”라 나타나있지 않으나 봉디와 병기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것 또한 단속곳 형태의 바지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덕온공주의 부군 남녕위 회갑 「의초발기」에 바디와 裡衣가 병기되어 있는데, 소재가 옥양목인 점으로 미루어 남자용 속바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이의는 남녀의 속옷바지를 설명하는임을 알 수 있다.

고의 역시 「衣櫛件記」중 왕세자와 왕자군의 의대에 나타난 바지 명칭으로 소재가 안동포, 옥양목인 점으로 미루어 남자의 속바지임을 알 수 있다.

### Ⅲ. 조선시대 이전의 바지

앞에서 논한 바지 관련 용어들을 토대로 하여 조선시대 이전까지의 바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바지에 관하여 최초로 언급한 기록은 Herodotos (그리스, ?BC 484~BC 425)의 「歷史」로, 스키타이인은 뾰족한 모자를 솟아오르게 쓰고 바지를 입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스키타이(Scythai)란 유라시아 일대에서 활약하던 고대 북방유목민족 전체

를 지칭한다.<sup>15)</sup> 그들은 기원전 8세기 경 출현하여 강력한 군사력과 발달된 청동기·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으며 당시 높은 문화수준을 갖고 있던 그리스나 페르시아와 동등한 교역관계를 하고 있었다. 기원전 4세기 경 전성기에 이르렀으나 내분과 사마르티아의 공격으로 국운이 쇠하여져 3세기 경 멸망하였다. 비록 문자도 없이 멸망하였어도 그들의 문화와 복식은 주변국에 많은 영향을 마쳤다. 그 중 하나가 바지로 로마 병사의 튜닉이나 게르만, 페르시아, 흉노족 등의 바지형 복식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sup>16)</sup>

우리민족의 바지착용은 기원전부터 추정할 수 있으나 상대 문헌자료와 고구려 고분벽화 등을 통해 삼국시대부터 바지를 착용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복식은 동북 아시아지역 유목민에게서 나타나는 스키타이계형으로 상의와 하의로 구성된 착의형 복장으로 좌입에 허리에는 대를 매고 있다.<sup>17)</sup> <도 2> 하의는 남녀를 불문하고 유사한 형태의 바지를 착용하고 있으며 여성은 예를 갖추 때 바지 위에 치마를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헌에 나타난 고구려의 바지는 窮袴「南齊書, 通典」, 長袴「翰苑」, 大口袴「隋書」, 太口袴「北史」, 袴大口「舊唐書」, 赤黃袴「舊唐書」 등이 있다. 또한 고분벽화를 통해 형태를 살펴보면 크게 통이 넓은 바지와 통이 좁은 바지 그리고 짧은 노동복 형태의 바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통이 넓은 바지는 부리를 맨 것과 매지 않은 것으로 나뉘어 있다. 이것을 통하여 고구려의 경우 신분, 계층이나 착용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바지를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백제는 靑錦袴「舊唐書, 三國史記」, 袴「梁書, 南史」 등이 기록에 나타나 있으나 벽화와 같은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다만 「梁書」에 “백제의 언어와 복장이 고구려와 거의 같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고구려 벽화에 표현된 것과 유사한 바지가 착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의 바지는 문헌에 袴「三國史記」, 柯半「梁書, 南史」 혹은 柯背「鷄林類事」, 褐袴「唐書」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경주 용강동에서 출토된 토용과 당나라 이현묘의 벽화를 통해 착용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

5C경 제작된 중국 梁 '職貢圖卷' <도 5>을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사신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삼국 모두 유사한 양식의 차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비록 문헌에 나타난 용어는 차이가 있으나 삼국 모두 유사한 양식의 바지를 착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도 5> 梁 '職貢圖卷'의 模寫圖 고구려, 백제, 신라 使臣 「한국의류학회지」, Vol. 13, No. 3, p.276.

고려시대 문헌에 나타난 바지는 袴「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國通鑑」, 襪袴, 襪頭袴「高麗史」, 窮袴「高麗圖經」, 寬袴「高麗圖經」, 犢鼻褌「東國李相國集」 등이 있다. 고의 착용자는 주로 병사이며 말고는 내관, 말두고는 승려, 관고는 부녀자들이 착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려인의 착의모습은 탕화와 고려 말기의 벽화, 그리고 초상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상류층의 바지 모습은 찾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당시 상류층은 중국복제의 영향을 받아 남자는 포 위주의 복식을 착용하였으며 여자는 치마를 착용하여 바지는 속옷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바지의 착용 모습은 '미륵화 생경변상도'에 하층민이 독비곤을 착용하고 노동하는 그림과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몽고습래회사」에서 찾을 수 있다. 「몽고습래회사」는 1281년 몽고가 일본을 침략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그 중 <도 6 -I>이 고려군으로 추정되고 있다.<sup>18)</sup> 또한 병사의 복식이 삼국시대 양식과 유사하며 바지 착용모습도 고구려 벽화 인물과 유사함을 볼 때, 상류층 복식은 중국제도의 영향을 받았으나 군인을 비롯한 하류층은 상대 기본 복식을 유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I



II

III

<도 6> 「몽고습래회사」의 고려군

조선시대의 복식은 袍의 문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포류가 발달하였다. 특히 사대부들은 燕居服이라 하여 상시 포를 착용하고 관을 써서 휴식할 때조차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를 가졌다. 따라서 조선시대 남자의 바지는 포 아래 착용하여 걸음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의의 역할을 하였고 여자의 바지 또한 치마 속에 착용되는 속옷으로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IV. 조선시대 남자 바지

##### 1. 바지 출토유물의 현황

조선시대 남자바지의 형태를 규명하기 위하여 본 장에서는 출토유물 중 바지가 발견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별히 묘주가 밝혀져 착용자와 생존 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로 모아 표로 정리하였

다.<표 2>

연도는 조선시대 초기인 15세기부터 말기인 19세기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남한의 전 지역별로 유물이 나타났으나, 서울을 포함한 경기지역이 18건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5건, 충북이 4건, 전남이 3건, 충남이 2건, 전북과 경남이 1건씩으로 경기지역이 가장 많았다. 묘주를 알 수 있는 자료로만 수집하였으므로 신분은 양반계층이 대부분이었다.

이것을 살펴보면 임진왜란 이전인 조선 전기의 경우 묘주의 성별과 상관없이 속곳형의 바지가 거의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묘주가 확실히 남자인 분묘에서도 사복바지가 단 한 벌도 나타나있지 않았으며, 더욱이 속곳형 바지를 착용한 채 염이 되어있는 예도 다섯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사복바지는 임진왜란 이후 생존하였던 인물들에게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2. 바지 출토유물의 형태분석

<표 2>에 나타난 바지 유물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면 <표 3>과 같다.

출토된 유물의 바지는 크게 속곳형과 사복바지, 그리고 과도기형으로 나눌 수 있다. 속곳형의 바지는 襠이나 밀이 부착된 바지로 사복 구분이 없으며 대부분 바지통과 부리가 넓고 트임이 있으며 허리에 주름이 잡혀 있는 바지를 의미하며, 구성양식에 따라 개당고형, 합당고형, 세가닥바지로 나눌 수 있다.

개당고형은 바지 가랑이 두 폭이 허리에서 합하여진 바지로 조선 후기 여자의 속바지와 같은 양식이다. 좌우 바지 가랑이의 밀 부분에는 당이 각각 달려 있으며 좌우 당이 겹쳐 있어서 속이 가려지도록 구성되어있는데 이 당은 작은 것과 큰 것 두 종류가 있다. 작은 당의 경우는 바지통이 허리 중심에 상당부분 겹쳐서 달려있어 당이 작아도 속이 노출이 안 되는 구조로 제작되었으며, 당이 큰 것은 밀과 같이 큰 당이 좌우에 각각 달려있어 이것을 중심에서 한쪽에 끼워 넣고 허리에 연결하였다. 대부분 뒤가 트여있어 착용한 후 여미도록 되어있는

데 간혹 옆을 트인 것도 발견 되고 있다.

王宇清은 그의 저서인 「中國服裝史綱」에서 '袴는 본래 앞뒤가 터진 開襟이며 앞뒤 막힌 것을 窮袴라 하는데, 漢人 上人 常服은 開襟袴이며 窮袴는 예외적이다.'<sup>19)</sup>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後漢 말 사서인 「釋名」에서도 '袴는 ... 跨, 兩服各跨別也' 라 한 것으로 보아 중국 고대 한인들도 개당고를 착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개당고는 비록 밀이 트여있더라도 허리 중

심쪽으로 깊게 잡은 주름으로 트인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구성된데다 상의가 길어 둔부까지 덮기 때문에 남자도 착용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포 중심 복식문화를 이루었던 조선시대의 경우, 바지는 실제적으로 내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남자의 개당고형 바지 착용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합당고형은 밀의 양쪽에 바지통을 부착하여

<표 2> 조선시대 바지의 유물 현황

이 름	본 관	생몰년도	발견지역	바지유물		비 고
				사폭형	속곳형	
李季胤	전주	1431-1489	경기 광주		1	
邊 脩	원주	1447-1524	경기 양평		2	
洪係江	남양	1450년대 1550년대로 수정	경기 양평		3	
金欽祖	의성	1462-1528	경북 영주		1	표주가 속곳형 바지착용
高 雲	장흥	1479-1530	경기 광주		4	
鄭 溫	경주	1481-1538	경기 파주		3	표주가 속곳형 바지착용
丁興斗 처 宋씨	나주, 은진	1508-1572	경기 고양		1	
申彦湜	고령	1519-1582	경기 일명		3	표주가 속곳형 바지착용
李 洞 처 鄭씨	동래	?-1583	전북 전주		2	
李씨	벽진	?-1585	경북 칠곡		2	
李彦忠	성주	1524-1582	서울 노원구		5	
蔡無易 처 孫씨	구례	1537-1594	충북 청원		2	
鄭休復	동래	1529-1604	경기 성남		1	
李彦雄 子부 韓씨	광주, 청주	중종-선조	경기 과천		4	
金 沾 딸 김씨	안동	1541-1584	경기 초월		1?	숨만 발견
		1579-1695			2	
金 緯		?-1598	충북 청원		3	
金 函		1568-1598	전남 영암		2	
長씨	단양	1500년대 말	경기 용인		1	
文益新		1556-1645	경남 합천	1	2	임난 후 생존
金 淪		1559-1623	경북		1	표주가 속곳형 바지착용
金德齡		1567-1598	전남 광주	1?		사폭바지형태의 숨만 발견
任씨	장흥	1590년대	"	2		과도기형
朴장군	밀양	?임난전후	충북 청원	3	1	과도기형
河씨	진주	1580-1646	경북 달성		17	
高汝雨	제주	?1570-1640	충남 천안		4	표주가 속곳형 바지착용
鄭良佑 자 泰齋	동래	1574-? 1612-1669	경기 여주	9		
洪克加	부주	?-1670	경북 안동	1		
金德遠	원주	1634-1704	서울 화곡	1		
洪禹協	남양	1655-1691	경기 반월	4		
義原君 懋	전주	1661-1722	경기 광주	3		
李泰坤	경주	1672-1763	충북 진천	1		
李益炆	전주	1699-1782	서울 상암동	3		
洪義俊	풍산	1761-1841	충남 천안	3		
李沈應	전주	1818-1879	경기 광주	2		

허리에 연결한 형태로 단속곳과 같으며 王宇濤이 앞에서 언급한 궁고를 의미한다. 이 바지는 밑이 막혀있으며 허리 옆을 약간 터서 입고 벗기에 편리하도록 구성되었다. 개당고형 바지와 마찬가지로 밑이 큰 것과 작은 것 두 종류가 있으며 역시 허리에 중심 방향의 주름이 잡혀있다.

세가닥 바지는 가랑이 한쪽이 이중으로 되어있는 구조의 바지를 뜻한다. 이것은 흔하지 않은 형태로 모두 네 점이 발견되었는데, 밑이 막혀있으며 숨을 두고 누벼져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보온을 위해 생겨난 것으로 생각되며, 용변 시 이중으로 된

가랑이에서 짧은 것을 걷고 간편하게 처리하도록 고안되어있어 다시 한번 우리 조상의 지혜에 감탄하게 된다.

사폭형의 바지는 큰사폭, 작은사폭, 마루폭과 허리로 구성되어 있고 트임과 주름이 없는 바지이다. 트임이 없으므로 허리를 넓게 만들어 입고 벗기 쉽도록 하였으며 착용 후 앞에서 겹쳐 여미고 허리띠를 둘러매어 입도록 되어있다. 바지의 부리에도 대님을 매어 여미도록 구성되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남자의 바지를 말하며 임진왜란 후인 17세기부터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

<표 3> 조선시대 출토유물 바지의 유형 분석

바지 명칭		모 양	묘 주 명	비 고
형태	구조 명칭			
속 곳 형	밑트임	開襠袴형 바지	변수, 정은, 김함, 신인식, 단양장씨, 진주하씨, 정휴복, 고여우	
	밑막힘	合襠袴형 바지	정은, 고여우, 진주하씨, 문익신, 고운	
	세가닥	세가닥 바지	홍계강, 정홍두, 벽진이씨, 고운	
과 도 기 형	밑막힘	속곳형 사폭바지	고여우	?1570 - 1640
		초기 사폭바지	박장군	임진왜란 전후
		앞주름 사폭바지	장홍임씨	임진왜란 전후
사폭형	사폭바지		정양우, 정태재, 홍극가, 김덕원, 홍우협, 의원군, 이태관, 홍의준, 이익정, 이연용	임진왜란 후



발견된 유물 중 속곳형과 사폭형의 중간형태의 것이 있다. 하나는 고여우(?1570-1640)의 묘에서 출토된 것이다. 이것은 속곳형과 같은 모양에 허리에 중심방향의 주름이 잡혀져 있는데 특이하게 사폭과 마루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박장군(임진왜란)의 묘로 전해지고 있는 墳墓群에서 출토된 것으로 사폭바지와 같이 바지 통이 좁으나 사폭이 형성되어있지 않고 가랑이 부분에 'ㅅ'자 모양의 당이 대어져 있다. 마지막 것은 사폭과 마루폭으로 구성된 사폭바지이나, 사폭 부분이 매우 좁게 구성되었으며 허리 중심에 맞추름 한 쌍이 잡혀 있다. 이것은 박장군과 장흥 임씨(1590년대)의 묘에서 출토되었다. 앞에서 이러한 중간형태의 바지는 과도기형으로 분류하였으며 모두 16세기 말, 즉 임진왜란 전후의 유물로 남자의 바지가 속곳형에서 사폭형으로 전이되어 가는 중간단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바지 변천의 맥을 잇는 좋은 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유물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조선시대 바지유형은 크게 속곳형과 사폭형, 그리고 과도기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속곳형의 경우 개당고형과 합당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속곳형 바지는 임진왜란 이전 생존하였던 남녀의 분묘에서 출토되었으며 사폭형 바지는 조선 전기 남자의 분묘에서는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후 생존하였던 남자의 분묘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란기 생존하였던 인물의 묘에서 속곳형과 사폭형의 중간 형태인 과도기형 바지가 출토되어 있어 이것을 통하여 조선 전기의 속곳형이었던 남자 바지가 전란을 전후로 하여 과도기를 거쳐 임진왜란 이후에는 사폭바지로 정착되었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 3. 조선시대 남자 바지의 변화

이상과 같이 출토유물을 통해 조선시대 남자바지에 대하여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변화의 전환점은 임진왜란 전후였다.

임진왜란은 1592년(선조 25)부터 1598년까지 2

차에 걸친 왜군의 침략으로 일어난 전쟁이다. 당시 중국은 명청교체기였으며 조선은 남인과 북인간의 당쟁으로 혼란스러운 정세였는데, 이를 틈타 일본은 세력을 키워 조선을 도모하였다. 전후 7년간에 걸쳤던 왜란은 조선·명·일본 3국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특히 싸움터였던 조선은 국토가 황폐화되고 백성은 도탄에 빠졌으며 정치·경제·문화·사회·사상 등 각 방면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에 구원병 청하였고 이때 파병되어 온 명나라의 여응주가 조선의 군복을 보고 다음과 같이 시를 지어 비웃었다.

“서부는 진나라의 유품이요, 병서에 대한  
은 나라가 모른다.

넓다란 관이 무인의 고갯이요, 넓은 소매  
옷의 군복일세.

무던 창은 쏘나무와 같이 썩고, 성을 쌓은  
높이는 어깨와 가지런하네.

왜구가 이르렀다는 소문을 듣자, 팔도가  
조각 구름처럼 흩어졌네.”<sup>20)</sup>

넓고 큰 복식은 상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朝鮮王朝實錄』 세종 13년 8월 기록을 살펴보면

“본국의 바지는 넓고 커 비용이 많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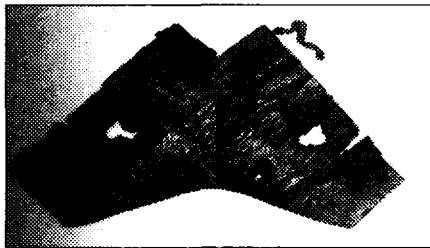
중국의 바지는 세 폭이면 된다.”<sup>21)</sup>

고 나타나 있다. 이것을 보면 임진왜란 이전인 세종 代의 남자 바지 또한 중국의 바지에 비하여 넓고 큰 형태였으며 이것은 사폭바지에 비하여 폭이 넓은 속곳형 바지로 추정되며 앞서 살펴본 유물 분석 결과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심재(1722-1784)는 그의 저서 『松泉筆譚』에서

“선조 임진왜란 후에 …우리나라 남자는 중국에서 전래된 唐袴를 입게 되었고 여자는 종래에 남자가 입던 古長袴와 廣袴를 함께 입게 되었다”<sup>22)</sup>

고 하였다. 이것은 임진왜란 전 남자바지가 여자 속곳과 같은 형태였음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 당시 넓고 커서 거추장스러웠던 복식에 대한 반성이 생겨 신체에 적합한 복식으로의 변화가 생길 때 남자의 바지도 좁은 형태의 당고로 바뀌게 되었으며 여자는 종래에 남자가 착용하던 고장고와 광고를 함께 속옷으로 착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여자의 속곳 바지를 '고쟁이, 고장바지, 꼬장바지'등으로 부르는 것과는도 유관한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조선시대 여자가 속옷으로 바지(고쟁이)와 단속곳을 함께 착용하였던 풍습과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중국에서 사폭바지를 착용하였음을 나타내는 유물이 <도 7> 전해지고 있으므로 심재가 거론한 중국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도 7> 明대 사폭바지  
『中國歷代服裝藝術』, p.361.

특히 이 시기 중국은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되는 혼란기라 조선에 명에게 요구한 예복들이 一襲으로 제대로 갖추어 오지도 않아 일부 대치되었으며, 전후 물자의 부족으로 색과 장신구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급조하기도 하였다.<sup>23)</sup> 더구나 명이 멸망 이후는 명제의 예복을 사여 받을 길이 없어 복식 체계가 國俗으로 변화한 것도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 중 바지 형태의 변화도 제재 없이 과도기를 거치며 사폭바지 형태로 변화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전기의 넓고 거추장스러운 복식형태는 많은 옷감 사용으로 야기되는 비용과다와 비효율성으로 인한 각성의 기운을 불러왔으며, 전시에는 전투복으로 부적당하였기에 명나라 장수에게 비웃음

을 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내·외부적인 개선의 필요는 과도한 부피의 복식에 대한 반성을 가져왔고 전쟁을 거치며 복식의 短小化 과정으로 이어졌다. 그 가운데 바지도 넓은 속곳형에서 상대적으로 좁은 사폭형으로 변화해 간 것으로 생각된다.

## V. 요약 및 결론

바지는 상대적으로 현재 한복에 이르기까지 남녀 공히 착용하여온 우리민족 고유의 기본복식이다.

고대 문헌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삼국시대부터 다양한 종류의 바지가 착용되었으며 고분 벽화 등의 미술자료를 통하여 착장 모습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유물이 없었기 때문에 바지의 구조는 정확히 알 수 없어 중국의 문헌에 나타난 것을 통하여 추측만 할 수 있었다.

유물로 바지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조선시대 초부터이며 조선 전기부터 발견된 바지 출토유물을 종합·분석해 본 결과 조선시대 초기에는 남자도 여자 바지와 같은 형태의 속곳형을 착용하였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제까지 일반적인 견해였던 조선시대 남자바지의 형태인 사폭바지는 임진왜란 후부터 착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선시대의 남자 복식 구조가 포 중심이었으므로 바지는 걸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남자도 속곳형 바지를 착용하여도 전혀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변화의 전환점은 임진왜란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전쟁은 조선 초 넓고 거추장스러운 의복에 대해 반성과 각성을 일으켰고 바지도 폭이 넓은 속곳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통이 좁은 사폭형으로 변화해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후 수습과정에서 남자의 바지는 과도기를 거치면서 속곳형에서 사폭바지로 변화하였으며 속곳형의 바지는 여자의 전용물이 되어 속옷으로 정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 발견된 출토유물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고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발견될 유물의 특징에 따라

더 심도 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고부자 (1997). 천안 풍세면 출토 제주고씨 유물에 대한 연구. 한국복식, 15, p.71.  
고여우 경우, 그의 생존년대는 족보에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아 손자 이하 후손들의 출생기록을 근거로 추산된 것이므로 확실한 연대는 아니다.
- 2) 金欽祖 (이은주 (1997). 김흠조 분묘의 출토복식에 관한 고찰. 경북: 영주시)  
鄭 溫 (박성실 (1998). 파주 금릉리 출토 경주정씨 유물 소고. 한국복식, 16)  
申彦湜 (고부자 (1999). 일영 출토 고령신씨 유물 소고. 한국복식, 17)  
金 滄 (이은주 (1998). 도포 형태의 전래와 발전 양상에 관한 실증적고찰. 복식, 36)  
高汝雨 (고부자 (1997). 천안 풍세면 출토 제주고씨 유물에 대한 연구. 한국복식, 15)
- 3) 이수봉 (1999). 임난전후의 출토유물의 상례. 조선시대복식연구. 서울: 학연문화사. p.206.
- 4) 이은주 (1997). 김흠조 분묘의 출토복식에 관한 고찰. 경북: 영주시  
박성실 (1998). 파주 금릉리 출토 경주정씨 유물 소고. 한국복식, 16.
- 5) 王宇清 (1969). 中國服裝史綱. 臺北:中華大曲編印會. pp.107-108
- 6) 김문자 (1994). 한국복식문화의 원류, 서울: 민족문화사. p.112.
- 7) 서유문. 무오연행록. 1권. 무오년 11월 16일 기록
- 8) 조효순 (1999). 한국복식풍속사연구. 서울: 일지사. p.231
- 9) 김동욱 (1973). 증보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p.174.
- 10) 박춘순 (1998). 바지의 문화사. 서울: 민속원. p.240.
- 11) 한국데이터베이스연구소.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서울: 서울시스템주식회사  
「朝鮮王朝實錄」世宗 18年 10月 戊子  
“... 빈에게 말하여 세자의 의복·신·띠 등의 물건을 몰래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고, 또 속옷·적삼·말근 등을 여자 의복으로 고쳐 만들어 그 어머니에게 보냈었다...”
- 12) ‘赤’자의 음이 ‘적’ 외에 赤의 경우와 같이 ‘치’로도 쓰이므로 ‘把赤’은 파치로 읽어야 옳으며 바지의 한자 차용어임을 알 수 있다.
- 13) 「朝鮮王朝實錄」世祖 13年 10月 甲寅 기록참조
- 14) 「朝鮮王朝實錄」成宗 10年 12月 辛未 기록참조
- 15) 김문자. 앞의 책. p.11.
- 16) 박춘순. 앞의 책. p.30.
- 17) 김문자. 앞의 책. pp.99-100.
- 18) KBS 영상사업단(2002). 고려 몽고 연합함대 일본원정 주력은 고려군이였다. KBS 역사스페셜. 2002년 2월 방송, 참조  
고려시대(현종 원년, 1010)의 석탑인 개심사지탑(경북 예천 소재) 하단에 무기를 들고있는 팔부중상이 조각되어있는데 頭飾이(도 6-II) 몽고습래회사에 나타나있는 병사의 머리부분에 있는 귀가리개와 유사한 깃털로 표현되어 있다.(도 6-III) 몽고습래회사에 그들 외에 앞목을 가리는 투구를 쓴 무사들도 나타나있는데 이들이 몽고군으로 추정된다.
- 19) 王宇清. 앞의 글
- 20) 한국데이터베이스연구소.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서울: 서울시스템주식회사  
「朝鮮王朝實錄」宣祖 26年 2월 乙巳
- 21) 「朝鮮王朝實錄」世宗 13年 8月 戊午  
本國之袴 寬大故多費 上國之袴 三幅可縫
- 22) 沈鏞, 「松泉筆譚」卷之4  
宣祖壬辰難後 ... 國人始倣華人之袴制男子着之謂之唐袴前着古長袴則與廣袴並爲婦人之着
- 23) 「朝鮮王朝實錄」宣祖 29年 3月 己巳 기록참조